

투자 광풍의 시대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 부동산, 주식에 이어 비트코인(가상화폐)까지. 투자 광풍의 시대다. 짧은세대는 '코인의 위험보다 내 인생이 더 위험하다'며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다. 주변의 경고음은 들리지 않는다. 올 1분기 빙햄·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 가상화폐거래소의 신규 가입자 250만명 가운데 2030 세대 비중은 63.5%. 60대의 은퇴자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세사람만 모이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얘기가 나온다. 정보도 많다. 유튜브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양한(그것이 가짜이든 진짜이든) 정보를 접한다.

#. 작년 7월 이후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40%대. 너도나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을 했다.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불안감이었다.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지역 새 집을 찾아 나섰다. 경기도의 아파트값도 불과 몇 개월새 호가가 2억~3억원 뛰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원, 수도권 아파

트리의 중위 매매가격은 7억원선. 스물 다섯번(2·4대책까지)의 부동산대책을 내렸던 정부다. 그러더니 서울, 부산 등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책을 인정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민심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 신한은행이 최근 전국 만 20~64세 경제 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20대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했다. 청년층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유행처럼 번진 것. 지난 2019년 주식 투자율이 23.9%였던 20대의 지난해 비율은 39.2%로 높아졌다. 주식 투자자 10명 중 7명은 작년에 신규 종목을 매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주식 거래자 중 85.8%가 지난해 처음으로 주식을 샀다. 올들어 지난 4일까지 개미들은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에서 50조4654억원어치를 매수했다. 이미 지난해 순매수 금액(34조3670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주식투자 전성시대다. 개미들 사이에선 '가만 있다가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포모증후군(Fear Of Missing Out·FOMO)이 바이러스처럼 퍼졌다. 이번 생에는 집을 살 수 없다며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눈을 돌

리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는 250만개를 넘는다. 지난해 말(133만6425개)과 비교해 3개월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돌아간다. 쉬는 시간이 없다. 스트레스를 받는 '폐인(극단적으로 심취한 사람)'이 늘고 있다. 2017년 처럼 거품이 꺼진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렵다.

#. 지난해 말 은퇴한 한 선배와 차에 동승한 적이 있다. 그는 대화 도중에도 수시로 휴대폰을 들여다 봤다. 표정도 순간순간 바뀌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어"라고. 그 선배는 "500만원 정도 투자했는데 한 달에 10% 정도의 수익률이면 용돈은 될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60대 이상 노년층의 가상화폐 투자액이 늘어났다고 한다.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1분기에 국내 60대 이상 노년층 5만7000여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샀다. 문제는 실제 수익률이다. 은퇴자금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대박'을 쫓다가 '썩박'을 칠 수도 있다. 주식, 가상화폐 모두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누구도 손실을 채워주지 않는다. "선배, 그만 그만 하세요."

/파이낸스&마켓뷰 bluesky3@metroseoul.co.kr

배달음식 하나 시켰는데 포장용기는 무더기



김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주간 배달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플라스틱'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이 크게 화제가 됐다. 게시물에는 100개에 육박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7~8평 남짓한 원룸을 가득 채우고 있다. 비대면 생활과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외식 대신 배달·포장 주문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등 쓰레기가 크게 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선별시설에서 처

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전년(776톤) 대비 1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티로폼 등 발포수지는 14.4% 늘었다.

사회 곳곳에서 '필환경'을 외치고 있지만, 배달 시장만큼은 예외인 것이다. 하나의 메뉴를 시키더라도 밥, 반찬, 국 등이 각기 다른 포장재에 담겨 오기 때문에 시킨 음식 수보다 더 많은 포장재가 함께 팔려오는 게 사실이다.

배달앱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며 일회용 수저와 포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옵션을 추가했지만 일회용품 줄이기 효과는 미비하다. 넘쳐나는 포장용기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회용 포장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배달업 회사들이 배달로 인해 발

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다회용기 사용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 소비자로 하여금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단지 일회용 수저와 포크를 제공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방법은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언제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손놓고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도 다회용기를 사용을 권장하고 무엇보다 시민들도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구의 날'에만 반짝 환경오염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tree6834@

오늘의 운세 5월 7일 (금 3월 26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송아지를 낳듯 재물이는다. **48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은 목욕이 최고일 것이다. **60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72년생** 생각을 바꾸면 행동하기 편하다. **84년생**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도 시원.
- 37년생** 오늘보다 높은 고지를 향해볼 것. **49년생**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1년생**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빛을 갚는 날이다. **73년생** 어제의 이웃이 오늘은 배운명덕 할 수. **85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 38년생**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마라. **50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62년생** 가족의 위로가 그리운 날. **74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나에게 해가 된다. **86년생** 강남에서 걱정이 해소되고 강북에서 마음이 즐겁다.
- 39년생** 아직도 귀중한 시간은 많이 있다. **51년생** 웃으며 병 주고 약 주는 시누가 밉상이다. **63년생**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날. **75년생** 해 오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가 높아진다. **87년생** 머리를 민지 말고 노력을 해야 결과가 좋다.
- 40년생** 부지런하니 늘 기쁨이 공존하여 감사. **52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64년생** 다툼이 생기기 쉬운 날. **76년생** 시작이 좋으니 결과도 좋다. **88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다는 뜻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 41년생** 몸은 수고로워도 이득은 발생. **53년생** 가화만사성이니 가정의 행복을 먼저 챙기자. **65년생** 오늘의 주인공이니 무슨 일에도 참여. **77년생** 길 떠나는데 지팡이가 부러진다. **89년생** 남의 흉을 감춰주면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다.
- 42년생** 아침부터 산행을 가보자. **54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기는 법. **66년생**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도 무시된다. **78년생** 흰색 옷을 입어보라 기쁜 소식이 온다. **90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요 보물이다.
- 43년생** 게으름은 몸을 더 수고롭게 만든다. **5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을 하게 된다. **67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깨워 돌아오니 기쁘다. **79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91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보라.
- 44년생** 자식자랑보다는 겸손을. **56년생** 파란색과 숫자 9가 행운을 준다. **68년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나에게도 이익. **80년생** 남편이 소중하니 외출보다는 집안일이 우선. **92년생** 삶이 고단할지라도 내일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 45년생** 남의 단점을 보려면 자신이 피곤. **57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69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이니 서두르지 마라. **81년생** 당다리 걸치다 양쪽 다 놓친다. **93년생** 스승님과 협업을 도움을 주니 좋다.
- 46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5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모든 것은 문서로. **70년생** 작은 부주의로 큰 계약을 망칠 수 있다. **82년생** 직장 후배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94년생** 얽지른 물은 담지 못한다.
- 47년생** 새로운 일이 기대만큼 실리가 없다. **59년생** 만나서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라. **71년생** 타인의 실수를 보듬어 주어야할 때. **83년생** 가족 간에 공과사를 다툼 일이 생긴다. **95년생** 아니 뎀 굴뚝에 연기 날수 있다.

김상회의四季

어머니, 위대한 이름



어느 작가의 글에선가 세상에서 가장 인쇄심이 강한 분이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글을 봤다. "주변에서 모두들 나를 정신과에 한 번 데려가 보라고 권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무한한 애정으로 감싸며 말이다." 슬회하며 작가는 덧붙인다. 만약 어머니가 인쇄심이 강한 분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학교 문턱도 밟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들에 대한 신뢰와 지혜가 그 인쇄심을 만든 것이라 생각된다. 남의 말과 통념에 따라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불안해하지 않으며 사랑만 보여준 것이다.

사랑하는 모성도 각양이나 보편적 엄마들 같으면 주변의 등쌀에 떠밀려서 또는 스스로 똑똑한 엄마임을 자처하며 심리전문병원을 탐색하여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신경안정제 복용을 시키고 했을 것이다.

역사적 인물들 중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그 어머니들 역시 훌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두들 자신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인가 여자로서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명언까지 있지 않은가.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는 대단한 망나니 소리를 들었으나 후에는 성인의 반열에 들었다. 그 때 그는 말한다.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이 오늘날의 자신을 있게 했다고. 덧붙여 "어머니의 기도는 자신을 거짓으로부터 구원을 한 행위"라고까지 했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바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와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 뿐이다. 자식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그저 경쟁에서 이기라고 불철주야 헬리콥터 맘을 자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늘린다**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자극하는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2		4	6	7			9
6								2
		5				4		
		1	8		4	3		
		6				2		
7								5
	6		2	5	3			4

					1	2	4	3
								6
		2	8					1
		3			9			7
1			5				6	
3						6	9	
7								
2	1	9	4					

정답

8	2	6	9	1	2	4	7	5	8
8	7	2	8	9	2	6	9	1	
9	9	1	8	7	6	2	8	2	
2	1	2	9	6	8	9	8	7	
9	9	8	7	2	8	1	6	2	
6	8	7	1	2	9	9	2	8	
2	2	9	6	8	1	8	7	9	
1	6	8	2	9	7	8	2	9	
7	8	9	2	8	9	2	1	6	

9	9	8	8	2	6	9	9	2	
7	8	1	8	2	6	9	9	2	
2	2	6	9	9	1	7	8	8	
8	2	9	7	8	9	2	6	1	
6	9	8	2	1	2	8	7	9	
2	1	7	6	8	9	8	2	9	
1	6	2	9	9	8	2	8	7	
9	8	9	2	7	8	1	2	6	
8	7	2	1	6	2	9	9	8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68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792호	